

4 뉴스

시대를 건너 ‘미원’이 전하는 메시지

석예진 기자 stpk02@khu.ac.kr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흥기준(평화복지대학원) 교수가 『미래를 여는 창 조영식 코드』를 펴냈다. 저자는 조영식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해 그 속에 숨은 코드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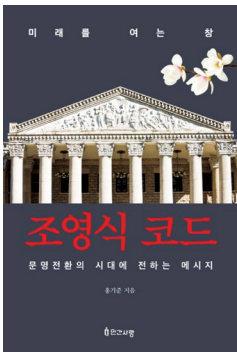
조영식 박사는 경희학원 설립자이자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쓴 평화운동가이며, 우주와 인간 세상의 변화 원리를 고민하던 사상가였다. 저자는 박사의 시와 사상, 생애를 통해 ‘삼이일, 밝음, 등불’을 숨은 코드로 제시했다. 박사가 중요시한 주리

생성론과 밝은사회운동, 그리고 그의 시 속에 등장하는 단어 등이 코드 해석의 근거다. 저자는 “우리학교 조형물 속 목련화와 무궁화 문양의 의미를 지난 4월 깨닫게 됐다”며 “조영식 박사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인류 문명을 열어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51년 신흥초급대학이 지금의 우리학교에 이르기까지, 잘 살기 운동이 밝은 사회운동과 제2 르네상스운동으로 확대되기까지, 조영식 박사를 움직이던 사상적 배경은 주리생성론이다. 세계의 생성 원리를 다루는 주리생성론은 우주 만물의 운동을 실(實), 상(相), 리(理)

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만물의 생성과 변화에서 ‘실’이란 에너지와 양자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거쳐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되는데, 그것을 ‘상’이라 한다. 이때 실과 상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이치가 바로 ‘리’이다.

리는 조영식 박사의 언어 속에서 ‘의식적 지도성’으로 치환된다. 조영식 박사는 인간의 의식적 지도성이 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저자는 의식적 지도성을 ‘주목(atten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인간 행위의 방향이 달라지듯,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만물의 생성과 변화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연을 인정하면 서도 인간의 자유 의지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박사의 사상



『미래를 여는 창 조영식 코드』

것을 생성한다. 이는 ‘1+1’이 ‘3’이 되는 원리, 즉 창발성을 의미한다.

저자는 ‘미래의 회고’, ‘지구적 공명’, ‘창발적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조영식 박사의 메시지를 함축했다. 인간은 미래 지향적 사고를 통해 문명의 새 방향을 고민해야 하고, 이러한 자세는 공명 현상을 거쳐 전 지구적 차원으로 증폭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내에는 평화를 위한 국제 제도 속에서 창발적 평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일렀다. 저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고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곱씹어 볼 만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이한구 교수는 “본 저서는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근원적으로 해명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확장한 보기 드문 역작이다”고 전했다.

경희 동문 월드컵 맹활약

이동건 기자 ehdjrs3589@khu.ac.kr

우리학교 동문인 축구 국가대표 김진수(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정우영(스포츠지도학 2009) 선수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견인했다.

김진수와 정우영은 조별 예선 세 경기를 포함해 브라질과의 16강전까지 모두 선발 출전했다. 두 선수는 아시아지역 예선부터 16강까지 진출한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수는 조별리그 세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가나 전에서는 90분 내내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좋은 크로스로 조규성의 동점 골을 도왔다.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부여한 김진수의 조별 예선 평점은 7.1점으로 이는 한국 대표팀에서 2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진수는 우루과이전에서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7점, 가나 전에서는 7.6점, 포르투갈 전에서는 6.7점을 기록했다.

정우영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매 경기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



경희 동문 김진수, 정우영 선수가 월드컵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다. 특히 정우영은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사활이 걸린 포르투갈과의 조별 예선 3차전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를 기록하며 수비와 공격의 가교 구실을 했고, 2개의 키 패스를 성공해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이날 경기 후스코어닷컴이 부여한 정우영의 평점은 7.1점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대표팀 선수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월드컵 개막 전 그를 향한 우려를 잠식시킨 활약이었다.

두 선수 모두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중심에 있다. 정우영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리스트이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해 세계 1위 독일을 꺾는 데 앞장섰다. 빌드업을 기반으로 한 벤

투후에서도 언제나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정우영의 A매치 출전 기록은 70경기이다.

2013년 호주를 상대로 A매치에 데뷔한 김진수 역시 지난 10년간 A매치 65경기에 출전하며 대표팀 부동의 왼쪽 수비수로 활약 중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손에 넣었고 청소년 시절에는 17세 이하 대표팀 주장으로서 월드컵 8강을 이끌기도 했다. 대표팀 주전으로 활약하던 2014년과 2018년 모두, 월드컵 직전에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낙마했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그의 활약은 더욱 값지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대표 선수를 배출한



(사진1=전북현대모터스 제공, 사진2=정우영 선수 제공)

대학이다. 우리학교와 같이 2명의 선수를 배출한 대학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뿐이다. 더욱이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베스트 11에 2명의 선수를 배출한 대학은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월드컵에서 빌드업 전술로 16강에 진출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우리학교 출신 선수가 2명이나 뛰어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감독은 “고승범, 강상우도 대표팀 명단에 꾸준히 포함되고 있다”며 “우리학교 선수들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3면에서 이어짐

제출된 사건기록은 업무당사자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으며 학생법률지원단은 사건의 성격에 따른 자문 변호사 배정, 신청서 작성 지원 등 실무 역할만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자문을 하지 않는다. 익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총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내용은 김창열(010-5154-2301) 학생법률지원단장에게 문의할 수 있다.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문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꽤 많은 수요가 있다”며 “운영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희 임기인 2022년이지만, 다음 총학에서도 정책 승계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봉 회장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자문 변호사 및 소수의 학생 운영인력만 열람이 가능하며 유출 우려는 없기에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다.

자문 변호사단 측은 “경희”는 우리가 변호사를 하면서 평생 함께할 이름이다”며 “이런 우리와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후배들을 돕는 건 선배로서의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높은 장벽과 비용 문제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후배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자 총학과 협업해 해당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